

이은봉, 『노자 도덕경—나만 홀로 우둔하고  
명칭하도다 — 사람을 다스리고 사귀는 지혜』

(도서출판 창, 1995, 330쪽)

이 광 수\*

1

노자 『도덕경』은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와 일본의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태어난 이래 지금까지 끊임없이 읽혀 온 고전 중의 고전이다. 서양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부터는 유럽의 지식인들로부터도 두터운 존중을 받아 왔다. 『도덕경』이 최초로 유럽 세계에 소개된 것은 라틴어 번역본이 영국의 학사원에 소개된 1788년이라고 한다. 그리고 1844년까지 프랑스어와 독일어 번역이 이루어졌다. 영어로는 1868년에 런던에서 John Chalmers가 편 것을 필두로 1891년에는 다시 런던에서 James Legge가 번역본을 펴고, 그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번역과 해석서가 나왔다. 근래에는 1956년에 Arthur Waley가 *Three Ways of Thought in Ancient China*를 펴 노자 『도덕경』 연구에 큰 획을 그었고, 1963년에 Chan Chan-Yuan의 *Creativity and Taoism*이나 1965년 Max Kaltenmark의 *Lao Tzu et le taoisme*, 1966년에 Holmes Welch의 *Taoism* 등이 나와 보다 깊은 연구의 성과를 더해 왔다.

노자 『도덕경』은 언제든지 읽을 때마다 신선함을 준다. 어휘의 분량이 5,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글에서 나오는 실로 강한 힘이다. 그 간결성은 번역자에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큰 매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노자 『도덕경』은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혁명을 시발로 한 물질 문명의 광포한 발달과

---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무한 경쟁으로 인하여 인간의 마음이 피폐해질 무렵 그들의 정신적 시원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 노자 『도덕경』의 사상을 가지고 서양에서는 기독교의 신비 사상과 비교하고 동양에서는 힌두교와 불교의 신비 사상과 비교하면서, 그 유사성을 찾아 인간의 반문명 사상에의 배경 역할을 기대한 것이다. 노자 『도덕경』의 번역과 해설에 그토록 많은 관심이 끊임없이 기울여진 데 대해 마지막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문장의 함축성과 시성(詩性)을 들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번역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데다 노자 이후부터 쏟아져 나온 수많은 주석서들이 그 번역의 다양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노자 『도덕경』의 번역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서구의 신과학 운동가들이 노자의 도의 개념을 물리학,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연계시켜 이해하려는 시도를 활발히 전개시키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노자의 『도덕경』에 쉽게 접근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서양철학자인 박이문 교수의 『노장사상—철학적 해석』이라든가 올해 나온 김충렬 교수의 『노장철학강의』가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 외에도 이에 관한 많은 에세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나만 홀로 우둔하고 멍청하도다』는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한마디로 노자 『도덕경』의 수상집이다. 이는 이 책이 『도덕경』을 학술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해석하고 비평한 책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물론 원문과 정확한 해석이 붙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결국 이 책은 ‘나만 홀로 우둔하고 멍청하도다’라는 제목에다 ‘사람을 사귀고 다스리는 지혜’의 부제를 달아 노자 『도덕경』을 쉽게 풀어 쓴 것 위에 저자가 철학 종교학 교수로서 체득한 세상살이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다.

저자 이은봉은 한국 종교학계의 대표적 학자이다. 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한국 고대 종교 사상」, 「종교와 상징」 등의 뛰어난 저작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엘리아데(Mircea Eliade)의 *Patterns of Comparative Religion*을 번역한 「종교형태론」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일찍이 종교학에 관한 참고 도서, 특히 우리말로 된 그것이 그리 많지 않을 적에, 종교학에 마음을 둔 젊은 학도들과 그 외의 많은 지식층에게 좋은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었다. 그가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엘리아데 연구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그의 연구 방법론이 엘리아데의 종교현상학적 접근 방법을 따르고 있음도 포함이 되겠지만.

특기할 만한 점으로, 저자는 하이텔 컴퓨터 동우회(일반적으로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학자들로만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시아 문화탐구회]의 대표 시삽을 93~94, 94~95년의 기간 동안에 역임했다. 이 책은 바로 컴퓨터 통신이라는 최첨단 문화 속에서, 초로에 이른 교수의 삶의 방편이 함께 어우러져 나온 것이다.

## 2

이 책의 첫마디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은 지적인 경쟁을 시키고 영악하고 똑똑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열을 올렸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범람한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넘쳐 나도록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일까?”(머리말)라는 의문 제기로 시작한다.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 그는 이 책을 씀으로써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였는지가 이 글 안에 잘 드러나 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을 통한 인간 회복이다. 그런데 저자 생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기존의 교육 방법으로는 그 뜻을 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는 하나의 작은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이 책 안에 폈다. 이 책에다가 밝혀 두진 않았지만, 책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 당시에 그가 이 책의 내용을 연재한 하이텔 [아시아문화탐구회]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 장자를 인용하면서 이야기한 것을 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이 책의 집필 동기인 그의 교육관을 살펴보도록 하자.

장자는 이러한 책을 통한 교육에 대하여 큰 기대를 걸지는 않습니다. 장자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란 그저 ‘도구’에 불과한 것일 테니까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발을 갈기 위하여 곡괭이나 삽이 하나의 ‘도구’이듯이 ‘지식’도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것일 테니까 장자가 전하려고 하는 인간의 ‘변화’와 관련되는 큰 교육일 경우에 그러한 지식에 의지하여서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장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를 귀히 여겨 찾는 데는 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책은 말을 기록해 놓은 데 불과하고 말이 귀히 여기는 것은 뜻이다. 그런데 그 뜻은 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 뜻이 추구하는 바는 말로써는 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을 귀히 여겨 책을 전한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그것을 귀히 여기나 오히려 귀하게 여길 것이 못된다. 그들이 귀하게 여기나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아서 볼 수 있는 것

은 모양과 빛이요, 들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름과 소리이다. 슬프다, 세상 사람들은 모양과 빛, 이름과 소리로써 저 도의 진실을 알 수가 없다. 대저 모양과 빛, 이름과 소리로써 저 도의 진실을 알 수 없다면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니 세상 사람들이 어찌 그것을 알까?

장자는 또 수레바퀴를 깎는 노인을 등장시켜 성인의 책을 읽고 있는 환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습니다.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환공이 대청 위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윤편은 대청 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었다. 윤편은 망치와 끌을 놓고서 제환공에게 물었다.

“대왕께서 읽으시는 것은 무슨 책입니까?”

“성인의 말씀이시니라.”

“그 성인은 지금 살아 계십니까?”

“이미 돌아가셨느니라.”

“그렇다면 대왕께서 읽으시는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입니다.”

“과인이 책을 읽는데 수레바퀴나 깎는 네놈이 무슨 참견이나? 네 변명할 구실이 있으면 좋거니와 변명을 못하면 죽이리라.”

“저는 제가 하는 일의 경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레바퀴를 깎을 때 느리면 험령해서 꼭 끼이지 못하고 빨리 깎으면 뽕뽕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는 것은 손에 익숙하여 마음에 응하는 것이라, 입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에는 익숙한 기술이 있는 것이나 저는 그것을 제 자식에게 가르칠 수가 없고 제 자식도 그것을 저에게서 배워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 나이 70이 되도록 늙어서도 수레바퀴를 깎고 있습니다. 옛날의 성인도 마찬가지로 깨달은 바를 전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왕께서 읽으시는 것도 옛사람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이 인용문은 필자가 약간의 첨삭을 하여 이 글의 문맥에 맞게 고쳤음. 이하 [아시아문화탐구회]에서의 인용문의 경우 동일함.)

이 책의 저자는 위의 수레바퀴 노인의 소박하지만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는 말에서 얻은 교육의 본질—가르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게 되면 피교육자 본인이 스스로 마음으로 터득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도덕경』 수상집에 담아 보려고 한 것이다. 즉 교육할 수 없는 부분, 너무 깎으면 험령해지고 덜 깎으면 들어가지 않으니 알맞게 깎아야 하는데 그것은 마음으로만 터득해야 하는 것이므로 자식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그것. 그것의 체험을 교육의 핵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도덕경』에서 얻고자 한 것이 저자의 의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이 책은 머리말과 여덟 개의 장 그리고 '신역도덕경(新譯道德經)'의 이름으로 된 원문 번역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말과 '신역도덕경' 사이에 있는 여덟 개의 장에는 각각 '도란 무엇인가,' '도의 체험,' '규범으로서의 도,' '자연과 규범의 합일,' '도와 덕,' '무위의 정치,' '대립을 넘어 통일로'의 일곱 주제 아래 노자 『도덕경』을 쉽게 풀었고 맨 나중 장에서는 '장자가 발전시킨 도의 현실적 응용'이란 이름으로 노자와 장자의 연결을 시도하였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사람들이 “젓먹이가 어머니에게서 최상의 편안함과 평화를 느끼는 것처럼 도 안에서 한없이 편안한 노자의 삶과 철학을 맛보기 바란다”고 했다. 바로 이 책의 집필 의도이다. 저자는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초개같이 여기는 똑똑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자산을 마음껏 나누어 주고 ..... 노자의 고독이 무엇인지를 차츰 알게 되는”(머리말)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도덕경』의 제20장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영특하고 똑똑하건만, 나만 홀로 우둔하고 명칭하도다’에서 따왔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 중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즉 인간 상실, 도덕 붕괴, 가치관 혼돈, 환경 파괴 등은 인류 장래의 존재 여부와 직결되는 것들이다. 그 만큼 이 문제들은 심각하다. 모든 싸움과 악은 인간의 이기성에서 나온다. 그 이기성은 한 인간 존재를 다른 인간 존재로부터 분리시키고 나아가 자연과 분리 시킴으로써 결국 한 인간이 그 외의 모든 것을 적대시함으로써 파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분리를 막아야 하고 ‘우리’ 안에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여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이 올바른 질서를 만든다. 이것을 도덕 경에서는 ‘도’라 하였고 힌두 경전 우빠니샤드에서는 ‘브라만-아뜨만의 일여(一如)’ 즉 자아라 하였다. 이제 우리는 개별성이 깨달음 안에서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도덕경』과 우빠니샤드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구는 대단히 닮았다. 『도덕경』 제1장에서 노자는,

도라고 표현된 도는 이미 영구불변의 도가 아니요 이름지어 표현된 이름 또한 영구 불변의 이름이 아니니라.

라고 노래하였다. 이것은 우빠니샤드에서 자아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된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를 연상시킨다. 「브리하다란니야까 우빠니샤드」(3.4.2.)에서 현인(賢人)은 자아를 노래하기를,

그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이 볼 수 있게 하는 자이며 들리지 않으나 귀로 하여금 듣게 하는 자이며, 마음속에 잡히지 않으나 마음이 마음의 작용을 하게 하는 자이다.

라고 하였다. 실로 파악할 수 없는 도이자 자아이다.

만물의 근본으로서의 도 사상은 곧 제4장의 '만물이 이로부터 나온다'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도사상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도와 유사한 개념인 우빠니샤드에 나오는 만물의 근원 브라만과 연결되고 또한 나아가 불교의 공(空)과 여래장(如來藏)으로 연결되면서 중국 땅에서 조우하게 된다. 이는 곧 도의 불로장생과 우빠니샤드의 영생이 하나의 현상으로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자와 『도덕경』이 이러한 신비적인 성격으로 인해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띠고, 결국 후대에 장도릉이 만든 종교가 노자와 연결되고, 그 때 노자는 이미 중국 종교 사회에서 신이 되어 버린 것과 초기 우빠니샤드의 자연 속의 명상이 곧 만물의 종교인 브라만교로 연결되는 것도 좋은 비교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가장 뛰어난 점은 해석이 쉽고 읽는 이들에게 편히 닿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이 책 안에서 밝힌 바는 없지만, 애초에 쉬운 해석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도덕경』에 좀 더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새로이 해석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에 관해 그는 하이델 [아시아문화탐구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펴기로 할 때에 대학에서 학생들과 노자 철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국내에서 번역된 책을 교재로 삼아 읽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 자신부터 한참 생각을 하여야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즉 번역에 붙은 주석이 더 어렵더라 이 말입니다. 번역에 주석을 붙이고, 주석에 주석을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 해설을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번역서가 아니고 무슨 이론서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을 것처럼 현학적인 언어로 울타리를 쳐서 젊은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죄가 되지는 않는지? 사실상 알고 보면 그토록 벽을 쌓지 않고도 즐겨 가며 읽을 수 있는 것일 텐데..... 우선 그 구절을 나 자신이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약간 내 방식의 어투를 섞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들을 읊조리며 혼자 있을 때 제법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애매한 구절에 대해서는 왕필의 주석을 따랐음을 밝혀 둡니다..... 하여간 낯익은 늙은 아이(老子)의 『도덕경』은 해설을 붙이면 군더더기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군더더기는 적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군더더기의 속성상 한번 말문이 열리면 장광설로까지 가고 마는 것이니 말을 타락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도덕경』은 노자의 도에 관한 시(詩)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어차피 도를 모르는 사람은 해설을 좀 붙여도 모를 것이고 아는 사람은 긴 해설이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일 것입니다.

그가 원문을 쉽게 해석하면서 특히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 있었다면 아마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쉬운 해석이었던 것 같다. 10장의 載營魄抱一能無離乎를 역자는 “(몸에) 營魄(魂魄, 마음)을 신고 一者(道, 절대자)를 품어 안아(抱一)”라고 했다. 역자는 번역문에서 자유스럽게 괄호를 쓰고 그 안에 생략된 어휘를 넣어 주거나 또는 다른 말로 설명해 주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은 보다 쉽고 명쾌한 해석을 독자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그가 원문이 갖는 시성을 간과하거나 포기하여 원래의 문학적 맛을 놓치는 우를 범한 것은 아니다. 같은 장의 계속 이어지는 문장에서 사용한 역자의 번역문은 원문의 맛을 결코 잃지 않았으니, 역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 현묘한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서 티가 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꼬!”라고 함으로써 하나의 뛰어난 운을 있는 시를 만드는 데 그 재능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또 복합적인 뜻을 가진 한자 어휘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시도를 하였다. 그는 이 점에서 가장 큰 문제랄 수 있는 우리 명사 어휘의 빈약함의 문제를 풀어쓰기를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다 우리 맛으로 승화시키는 데 좋은 예를 보여 주었다. 24장의 企者不立 跨者不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니 역자는 이를 “발돋움한 자는 그대로 오래 서 있지 못할 것이요 가랑이를 벌리고 걷는 자는 오래 걸지 못하느니라”고 했다. 하나의 우리 격언을 우리 맛으로 느끼는 것 같은 기쁨을 주는 번역문이다. 이렇듯 쉬우면서 우리 맛을 느끼게 하는 글은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면 관계상 하나의 예만 더 들어보기로 하자. 20장의 唯之與阿 相去幾何를 역자는 “‘예’하는 대답과 ‘응’하는 대답 사이에 그 차이가 얼마나 된단 말인가?”라고 했다. 참 자유로우면서 쉬운 번역이다. 그렇다고 요즘 유행하는 『도덕경』의 과도한 대중적 접근 혹은 감각적 접근은 분명 아니다. 저자는 도에 관하여 현대적인 의미를 쉽게 해명하되 근거 없는 상상력을 투입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도덕경』 본문의 정신에 따라서 최선의 번역을 한 것이다. 이른바 『도덕경』 연구의 제일 원칙이라 할 수 있는 ‘노자를 통한 노

자의 이해'를 철저히 지킨 셈이다.

저자는 원문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쓰면서 그리스도교와의 비교에 많은 주의를 내심 기울인 것 같다. 그것은 저자가 근본적으로 여러 종교의 복합적인 현상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그대로 기술하는 데만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이른바 현상학적 혹은 종교학적 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어느 특정한 '현상'이 어떻게 여러 종교에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데에 가장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도덕경』과 『성경』을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종교 현상의 표현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그의 학문적 기본 성향에 충실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 62장을 보도록 하자. 그는 원본의 善人之寶 不善人之所保를 “이 道에 의해 ‘구하는 바는 얻고, 죄 있으면 사함을 받느니라’”고 했다. 일부를 따옴표까지 쳐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 눈에 크게 띄는 부분이다. 이러한 『성경』과의 관계 설정은 여러 곳에 나타나는 해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름 붙임’과 인식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는 구약성서의 야훼 하느님의 경우를 인용하였고(20쪽), ‘자연’에 관한 설명을 위해 그는 ‘절대 타자’와 하느님의 초월성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34쪽). 특히 그의 ‘도의 체험’에 관한 설명 중에 ‘도’의 영원한 시간이자 자연과 하나되는 시간의 개념을 『성경』의 시편 23편과 42편 그리고 요한 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예화에서의 영생의 개념과 비교한 것은 그의 탁월한 해설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49쪽부터 52쪽).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양심 있는 원로 교수의 지적 또한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맛이다. 그는 노자의 ‘대도무문(大道無門)’과 장자의 ‘대도무문(大盜無門)’을 인용하면서 우리 나라 대통령의 정치적 가벼움을 신랄히 비판하는 정치 비판(66쪽)에서부터, 『도덕경』 55장에 대한 해설에서 ‘갓난 아이 고추의 자연스럽게 불쑥 서는’ 모습을 통해 요즘 우리 나라 졸부들의 ‘동남아 정기(精氣) 여행’에 관한 사회 비판(113쪽)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우리의 환부를 아프게 지적하고 있다.

#### 4

책의 마지막 장에서 장자를 다루어 노자 『도덕경』에 나타난 핵심 사상의 발전된 추이를 보았듯이, 노자의 『도덕경』이 나오게 된 그 이전 사상에 대한 간략한



고찰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특히 당시 사회, 역사적 배경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는 게 매우 아쉽다. 노자의 반문화주의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과연 그것은 공자의 복고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의 민중들을 위한 사상은 어떤 종교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가 등, 적어도 본말이 전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언급이 되었으면 많은 독자들의 이해에 더 좋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저자 특유의 쉬운 필치로 박식한 비교 해설을 곁들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의 원본인 『도덕경』의 정체(identity)에 관해서는 대단히 많은 이론들이 있다. 우리는 우선 노자라는 역사적 인물의 존재에 대하여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가 언제의 인물인지, 또 그는 어떤 직업을 가진 인물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이 과연 한 사람의 저작인지 혹은 여러 사람들의 저작물들을 묶어 놓은 선집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노자 『도덕경』은 단지 오천여 개의 낱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지극히 철학-종교적이면서 뚜렷한 정치-사회적인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확실한 운을 밟고 있는 시와 같기도 하고 혹은 너무나 많은 말들이 압축되다 보니 무슨 압초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는 곧 노자 『도덕경』에 대한 절대적 해석이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는 논리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어차피 가설 차원의 이론에 관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 해설서나 연구 논문이 아닐 바에야 깊이 다룰 수는 없다. 더군다나 컴퓨터 세대 젊은이들을 주 독자 대상으로 삼은 이 책이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지 않은 점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이 우리 시대에 음미해야 할 고전이라는 사실과 그 내용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는 사실이다. 고전 읽기의 맛은 '스스로'에 있다. '스스로' 읽을 때 고전 읽기의 참 맛을 볼 수 있다. 고전을 읽을 때 특정 자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그 배경에 깔려 있는 포괄성을 스스로 읽어 내려가는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고전 읽기 기본일 것이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이 책이 독자들에게 그 '자연스러움'의 방법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그냥 기존의 것에 이끌려 가는 방식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 저자 특유의 쉽고 이해하기 편한 문장과 주변의 이야기들을 묶어 노자와 노자 『도덕경』에 관한 해설 혹은 나아가 이 고전을 읽을 때 찾을 수 있는 맛과 그 길등을 머리말이나 그와 유사한 부분에서 따로 다루어 주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

은 욕심이 든다. 그러나 이 또한 평자의 '도'에서 벗어난 욕심일 뿐이다. 젊은 세대를 위한 『도덕경』 수상집으로서는 이 이상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